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계산이 ‘동네공항’ 전략시커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중〉소지역주의 극복해야

#. 무안군은 지난 2019년부터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라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에만 1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비슷하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1개 사회단체에만 보조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무안군은 기존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를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 조례’로 바꿨다. 국방부가 요청한 설명회도 거부했다. 군 공항 이전을 막기 위해 무안군이 주민 협세와 행정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지난 2007년 11월,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축하 입장문에 “무안국제공항은 광주와 전남의 미래이며 비전이다. 광주시가 국제적으로 살기 좋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안을 거점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장에 당선된 뒤인 2018년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전남도, 무안군과 합의했다. 2년 뒤에다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민간 공항은 약속대로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무안공항은 2007년 11월 개항 당시 정부가 내놓은 축하 발표문에 언급된 것처럼 ‘광주와 전남의 미래이며 비전’이다. 정부도 공항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공항개발 중장

서남권 대표 국제공항 개발 계획

15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 없어

무안군의 군 공항 저지 활동 문제

합평 유치 움직임 실질 효과 미흡

주민 설득·소통 적극적 자세 필요

기 종합계획에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개발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밝힌 상태다. 15년이 넘었지만 무안공항은 개항 초기와 달라진 게 없다. 서남권 대표 국제공항이라는 위상을 확립하기는커녕, 동네 공항으로 전락했다. 개항 이후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335만1000명이 이용했는데, 청주공항의 지난 1년 이용객(317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운영도 15년간 적자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누적 적자만 1672억원에 이른다.

무안공항이 거점 공항으로서 자리잡지 못한 것은 지역 이기주의와 단체장들의 정치적 계산 등이 맞물려 갈등을 반복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 전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항 명칭 변경, 지역 여론 등 눈 앞의 단기적 이해에 치우쳐 대립한다는 것이다.

무안군의 경우 ‘광주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을 하겠다며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에 매년 1억원 가량을 지원하면서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아예 행정조직에도 ‘군공항 이전 대응 팀’을 두고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에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무안군이 행정 조직으로 미래 성장과를 두고 ‘군 공항 이전대응팀’ 외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담당하는 ‘신성장산업팀’을 운영하는 만큼 이들 두 개 팀을 활용해 군 공항 이전을 항공산업도 조성 등과

연계해 무안공항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건너차며 군 공항 저지 활동에 힘을 쏟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광주·전남 상생=호남 전체 이익’이라는 인식도 열어지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0년 ‘광주공항은 계속 존치해야 한다’며 무안공항으로의 통합을 거부했다. 그러다 2018년에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했고, 2020년에는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민간 공항은 약속대로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겠다”고도 했지만 6개월도 못가 “민간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해결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한다’(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한다’(5차 〃) 등 국가 공항개발종합계획은 15년 넘도록 사실상 헛 말이었다.

합평의 유치 움직임도 광주·전남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층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평의 경우 사실상 광주와 맞닿아 있어 군 공항 이전의 실질적 효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흡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전투기로 2분도 안 되는 거리에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군 공항을 조성해달라고 정부를 설득하려면 논리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자치단체장들의 전향적인 자세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이 상생 발전하는 사업이 되도록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기우식 참여자치 21 사무처장은 “지자체 장은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광주·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중대한 정책이 있다면 이에 대해 주민 반대를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을 통해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자 노트

광주 부시장의 ‘5·18 술판’



유연재
사회부 기자

광주지역 기자들은 매년 5월 17일 저녁식사를 할 때면 약간의 ‘음복’을 하는 전통이 있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칼에 스러진 영령들의 희생을 기리고, 43년이 지나도록 매듭짓지 못한 진상규명에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5·18민중항쟁 전야제가 열린 지난 17일, 일을 마친 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인근의 한 식당으로 향했다. 평소 왈차지컬하게 술을 즐기던 기자들도 이날만큼은 5·18을 취재하는 광주 언론인으로 서 무게감을 느끼며 담담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음복을 할 때도 서로 술잔을 부딪치지 않았다.

이날 식당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5·18 관계자들이 잇따라 찾아왔다. 위르겐 힌츠퍼터를 도와 5·18 실상을 세계에 알린 ‘백시운전사’ 김사복씨 아들 김승필씨, 신군부의 강제집압 명령을 거부한 ‘민중경찰’ 안병하 치안감의 아들 안호재씨,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한 부상자와 하나뿐인 형제를 잃은 유가족 등 삼삼오오 모여 서로 위로를 나눴다. 한 부상자는 “또 오월이 왔는데 무엇 하나 매듭지는 게 없다”며 “매년 이날이 되면 가슴 한 칸이 먹먹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같은 날 동구 불로동의 한 식당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술자리가 있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한 남녀 10여 명이 17일 오후 7시 30분께 이곳에서 소주·맥주 등 30여 병을 마시며 술판을 벌인 것이다. 참석자들이 “김광진, 김광진”을 연호하는 소리가 식당 바깥까지 울릴 정도로 법석이었던

테라 식당 주인이 핀잔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김 부시장은 식비와 술값 등 44만여원을 법인 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5·18 추모 주간이 되면 광주시는 상주가 된다. 더구나 김 부시장은 광주시 정무직 중 최상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다. 5·18 피해자들이 43년째 낳지 않는 상처를 호소하고 있는데, 상주가 술주정을 부리는 공무원들을 말리지는 못할망정 술판을 주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납득이 안된다. 하물며 문화·관광 등의 분야를 총괄하는 부시장이 전야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술자리를 즐겼다니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 부시장의 ‘술판 논란’은 지난 2000년 발생한 이른바 ‘새천년NHK 단란주점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2000년 5월 17일 5·18 전야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386세대 정치인들이 광주시 동구 불로동의 ‘새천년NHK’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인 사건이다. 이들은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는 등 추태를 부려 지탄을 받았다. ‘오월 영령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는 평가가 뒤따랐음은 물론이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났지만 광주의 아픔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5·18 진상규명은커녕 피해자 보상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지금도 5·18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한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광주를 대표한다는 고위공직자가 5·18 추모 주간이 시작되자마자 술판을 벌였다니, 젓밥이 아까운 상정이다.

/yjoyou@kwangju.co.kr

AI 챗봇 ‘구글 바드’에게 인공지능도시 물었더니…“광주시”

“투자장려 정책 채택·기반시설 구축…AI 중심도시로 성장” 강조

AI인재육성·생태계 조성·국제협력 등 제안…미래차 산업 전망도

구글 인공지능(AI) 챗봇 ‘바드’(Bard)가 23일 대한민국 인공지능과 미래차 산업 대표도시를 묻는 질문에 ‘광주시’라고 답했다.

바드는 “광주시는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했다”며 “그 결과, 광주는 현재 AI 기업 100여개, AI 관련 인력 1만여 명이 활동하는 AI 중심도시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바드는 특히 “광주에는 인공지능융합 집적단지, 인공지능융합 연구개발(R&D)센터, 인공지능혁신센터 등 AI 관련 시설이 있다”면서 “광주는 우리나라에서 AI 산업을 주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

다”고 평가했다.

바드는 또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AI 인재 육성과 AI 생태계 조성, AI 활용, 국제협력, AI 홍보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바드는 “AI 인재 육성의 경우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광주에 대학원과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AI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투자와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인공지능을 교육, 의료,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시민의 삶의 질도 높여야 한다”며 AI산업 양성 방안 등도 제

시했다.

바드는 이어 “광주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도약할 수 있고 전망 또한 밝다”면서 “미래차 산업에서도 광주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미래를 전망했다.

바드는 또 대한민국 미래차산업 대표도시를 묻는 질문에도 “광주시가 대한민국 미래차 산업의 대표 도시”라고 답한 뒤 “광주시는 자동차 산업의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차산업의 선도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기관도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기반시설(인프라)과 기술력도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바드는 특히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도 포함돼 광주시가 미래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독감환자 급증…한달새 4배 증가

보건당국, 호흡기 질환 주의 당부

광주에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해 보건 당국이 호흡기 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올해 19주 차(5월 7~13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비율’은 외래환자 1000명 당 16.2명이었던

해제 등 영향인 것으로 광주시는 분석했다. 인플루엔자 증상은 38도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식 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고 진단받으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임대 보증금 2억8천 월세 2,400만원 포함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447㎡ (740평)

-경관 좋음. 별장형 빌라 등 가능. 숙박시설가능

-매도 7억7천만원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 약 3,223㎡ (4,000평선)

-전원주택단지 좋음. 은행 2억 매도 12억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절 땅 4,650㎡ (1,406평)

-공사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1,735㎡ (524평)

-컨테이너 있고 공사가 3,740만원 매도 7,5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투자 등 적합 1억7천 (평당 11,822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37

고흥군 공고 제2023-1079호

『고흥 군관리계획(재정비)안』공청회
개최 공고

고흥 군관리계획(재정비)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농지법 제31조의2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2023년 5월 22일
고 흥 군 수

1. 목적: 「고흥 군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3. 6. 7(수) 10:00
· 장 소: 고흥읍사무소 회의실(2층)

3. 고흥 군관리계획(재정비)안
· 계획면적: 807.3km²
· 목표연도: 2030년
· 계획내용: 군 장기발전구상 및 미래상,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개편 구상, 용도지역·지구구역, 군계획시설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4. 주민의견 제출: 공청회 개최 당일 및 개최 후 14일간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고흥군청 건설과(FAX : 061-830-5588) 의견 제출
※ 관련도서는 고흥군청 건설과 비치

5. 기타사항: 추가 공청회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건설과(☎061-830-5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3-1507호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안) 열람 공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중요사항(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민의견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청취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4일
여 수 시 장

1.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사항
가.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나. 폐기물발생량(변경)

구분	사업장배출사업장 폐기물(ton/일)		지정폐기물(ton/일)	합계(ton/일)
	가연성	불연성		
발생량	2,183.23	2,223.47	732.94	5,145.34
소각처리량	816.32	639	248.29	1,072.11
매립처리량	396.00	315.37	13.70	685.99
재활용처리량	1,000.99	1,307.60	492.65	3,367.24

나. 폐기물처리량(변경)

구분	처리량(ton/일)			면적(m ²)			비고
	가장	변경	변화율	가장	변경	변화율	
폐기 1	대토1~6과 중토2~1 국지도로 차곡	매립시설 96,585.9㎡	-	-	-	-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 (C)처리
		소각시설 7(일반59%)	-	84.0톤/일 (일반59%)	84.0톤/일 (일반59%)	-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 (C)처리
폐기 2	여수시 월동동 250번지 일원	7기타처리 230㎡/일	210.90㎡/일	-	-	-	지정폐기물 (B)처리
		소각시설 7(일반59%)	-	124.8톤/일 (일반59%)	124.8톤/일 (일반59%)	-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 (B)처리
		소각시설 (산과)	-	141.6톤/일	141.6톤/일	-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 (B)처리
	여수시 낙포동 863번지 일원	60톤/일	210.90㎡/일	-	5.974	210.90㎡/일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 (B)처리
	여수시 낙포동 3802번지 일원	253㎡/일	210.90㎡/일 (일반59%)	732.72㎡	90.909	210.90㎡/일 (일반59%)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 (B)처리
폐기 3	여수시 화포동 1313	-	-	-	-	-	사업장지정폐기물(한글쓰기)(주) (자)처리
		소각시설 7(일반59%)	-	30.5톤/일 (일반59%)	30.5톤/일 (일반59%)	-	사업장지정폐기물(GMMVA) (자)처리
	여수시 중흥동 759	-	-	-	-	-	사업장일반폐기물(일반) (자)처리
	여수시 낙포동 854번지	소각시설 7(일반59%)	-	98.0톤/일 (일반59%)	98.0톤/일 (일반59%)	-	사업장일반폐기물(일반) (자)처리
		재활용시설	-	200톤/일	-	200톤/일	사업장일반폐기물(일반) (자)처리

2. 산업단지의 개발계획변경 목적
·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 한계, 사업현황의 연장 방한, 자연순환정책이라는 국가정책에 부합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여 생산시설의 원활한 제품생산에 위한 지원하여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개발 인허가를 통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고, 운영중이지 않는 시설의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삭제하여 현재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현실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3. 그 외 사항(현장방문) - 개청장
4. 열람기간: 2023. 5. 24 ~ 2023. 6. 7. (14일간)
5. 열람장소: 여수시 도시계획과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61-659-4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광주일보 71년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여행구독 220-0550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나
매거진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철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